

[토론문]

## 만약 국보 DAO가 목표모금액을 달성했다면?

권국현 변호사

간송미술관 소장품인 국보 2점이 경영난을 이유로 경매에 출품되자, 시민들이 국보의 구입 및 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DAO("국보DAO")를 결성함. 국보DAO는 불과 10일 만에 약 24억 3,000만원을 모금하였으나,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자 하루만에 모금액을 모두 환불하고 해산하였음. 본 토론문은 만약 국보DAO가 모금액을 달성하였음을 가정해 보고,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을 논의한 다음 향후 DAO를 둘러싼 법적 준비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만약 국보DAO가 모금에 성공하여 해당 국보를 구입하기로 결의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이슈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 국보DAO는 구매계약 또는 (수탁기관을 통한 구매라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 조합규약은 별도로 제정하였으나,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고 조합원의 변경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조합을 기존 조합개념에 포섭할 수 있는가
- 국보DAO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가
- 국보DAO의 대외적 대표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가
- 국보DAO는 해당 국보의 진정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가
  - 권리능력
  - 문화재보호법상 소유자 등록 가능성
  - 동산: 명의신탁은 불가능하고 선의취득의 대상
- 국보DAO가 국보의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가정할 때, 국보DAO의 지분권자는 국보의 지분권자인가
- 모금시 고려하지 않았던 이슈가 발생할 경우 국보DAO는 voting 기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 국보수리비용, 예상치 못한 조세 등 이슈의 시의성이 떨어진 이후의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 애초 추가 비용부담의무가 없음
  - 국보가 하자가 있거나 가짜인 경우, DAO의 대리인의 배임행위 등 DAO에 손실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보DAO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국보DAO의 활동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국보DAO를 상대로 한 소송이 벌어질 경우 관할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 추후 국보DAO의 다수지분권자가 출현하여 voting을 통해 국보를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소수지분권자의 의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결국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강력한 구속력에 의한 신뢰는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내부관계만 규율할 뿐, DAO의 외부관계는 기존 법률관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DAO가 대외적으로 대표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책임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이 경우에도 명확한 설명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법률과 다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나 또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DAO에 대하여는 법률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DAO를 규율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DAO의 법인격 및 단체의 형태에 관한 사항
- DAO의 핵심 목적에 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 DAO의 소수지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 DAO의 대외적 대표권자 또는 DAO의 법률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 자에 관한 사항

- DAO의 자금 모집시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해설 포함)
- DAO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 관할에 관한 사항